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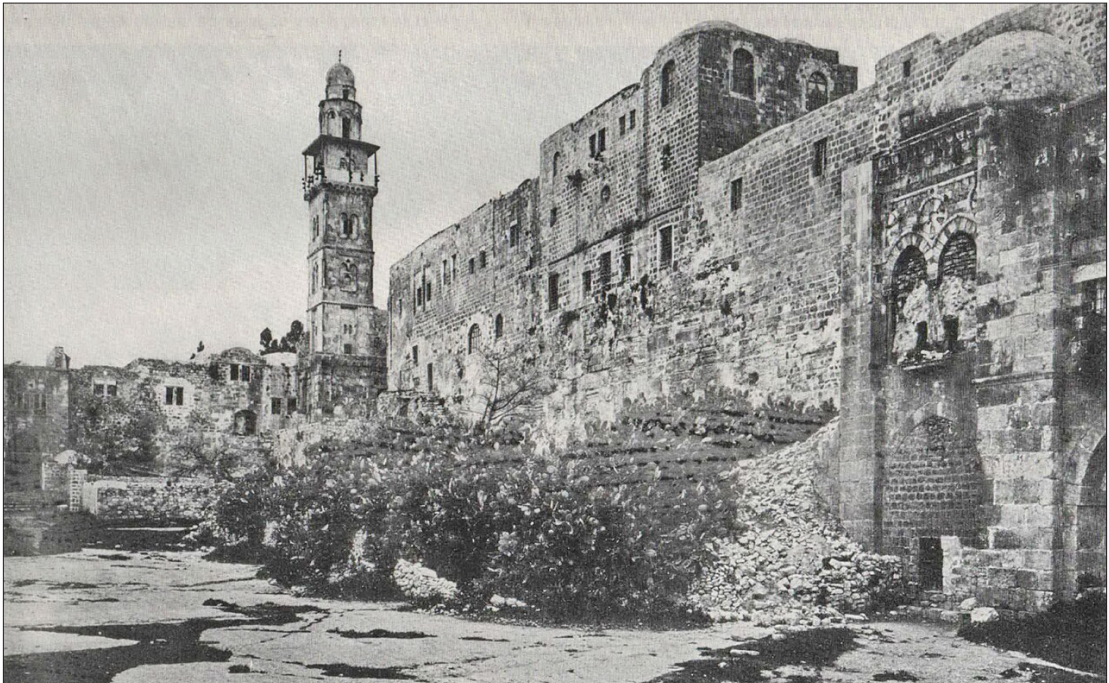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600호

2026년 10월 2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안토니아 요새 터 일대의 옛 모습. 바울로 사도가 군중 앞에서 증언한 사건의 배경이 된 곳이다.



루가 제6주일
성 마르키아노스 순교자
성 타비타 의인
(제4조 • 조과 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봉)295
- 복음경 : 루가 8,27~39 12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자기 자람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스)

[42회] 증오를 이긴 복음

폭동의 소란 속에서도 바울로는 당당하였다. 그는 로마 병영 계단 위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던 군중을 향해 히브리어로 말을 열었다.(사도행전 21,40)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는지, 다마스쿠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증언하였다.(22,1-21) 분노에 사로잡힌 군중 앞에서 과거와 회심을 고백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바울로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불러 주신 주님의 자비가 그를 굳세게 하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은총이 죄와 증오를 이기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증언이었다. 비록 군중은 다시 격렬하게 반발하였지만, 복음은 폭력의 소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도 바울로는 자신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었다.

고립에서 창조적인 고독으로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고독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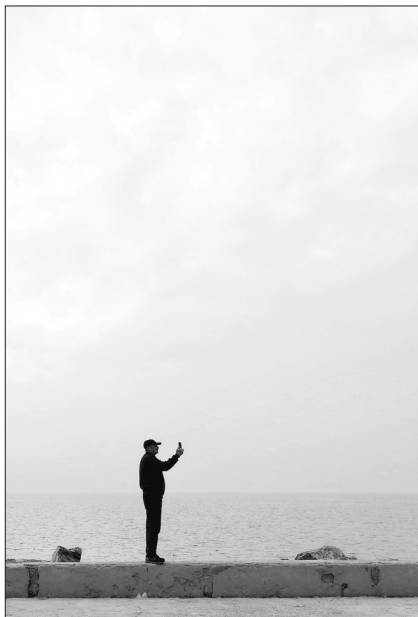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주는 사랑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고립을 극복하고 고독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관심을 돌리고, 온갖 방법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종종 극심한 불안과 심리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으로서의 고독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단순한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비판하며, 참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내적 인간’이 성숙해집니다(로마 7,22; 에페소 3,16 참조).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내적 인간’



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요함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맑고 깨끗한 생각으로 하느님과 소통하고, 잠시나마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사무엘상 3,9)

셋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 성인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 주시는 일치의 끈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독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소 2,19 참조)

결론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고독의 가난함 속에 사실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며, 다른 사람들을 다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업적들이 바로 고독 속에서 잉태되고 성숙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성서를 읽으려고 펼칠 때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여러분이 영적인 책이나 특별히 성서를 읽으려고 펼칠 때,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단어나 구절의 뜻을 이해하려고 물을 때, 그것은 마치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저는 성서를 연구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때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서 가르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곳에 은밀히, 하지만 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서와 영적인 책의 각 페이지, 한 줄 한 줄 뒤에서 그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의 자녀여, 어서 오너라.”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로 갑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와 주세요.”

저와 그리스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성서와 영적인 책을 읽는 것은 계시이며, 하느님과 우리가 은밀히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와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적인 군대인 성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은밀히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 위에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예전에 어떤 성인이 “비록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성찬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던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것입니다.

저의 한 친구는 언제나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성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보다 무언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 아토스 성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의 원장이었다.(1934-2019)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수)은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의 축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가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0월 26일(월)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국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 대교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 신학자, 철학자, 신비가」 (Saint Gregory of Nyssa - The Theologian, the Philosopher, the Mystic)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일(월)

오후 2:30-6:00

(심포지엄 종료 후 식사 제공)

-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65동)

■ 서울 성당 세계 음식 축제

지난 10월 18일, 성찬예배 후,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세계 음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웃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며 성당리에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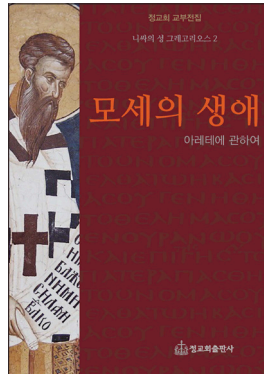
신자들은 며칠 전부터 정성껏 행사를 준비했으며, 청년회 '신데즈모스'와 부인회 '구복회'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하여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 식

■ 신간 소개

모세의 생애 - 아레테에 관하여 |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스 지음 | 김산춘 옮김 | 정교회출판사 | 191쪽 | 22,000원

정교회출판사가 펴내는 "교부전집"의 두 번째 책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4세기의 위대한 교부로, 동방교회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신비가로 여겨집니다.



이 책에서 성인은 모세의 생애를 단순히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 참된 완전을 추구하는 모든 영혼의 영적 여정을 안내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교부 문헌을 넘어, 정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과의 결합을 갈망하는 영혼을 위한 살아 있는 영적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선교 40주년 기념식

지난 10월 17일(토), 성모 희보 성당 선교 4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정확히는 1982년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으니 44주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주년은 성당 축성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기념식은 코모도호텔에서 열렸으며,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축하 메시지와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및 각 단체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자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있었고, 준비된 뷔페와 선물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친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열정을 본받아, 앞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부산에 정교회를 널리 알리는 전도자가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